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16년 11월 09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통신은 11월 09일(수) 10시 10분부터 보도가능)

배포일시	2016. 11. 9 (수)	담당부서	철강화학과
담당과장	김종철 철강화학과장 (044-203-4280)	담 당 자	이재석 사무관(044-203-4285) 한종호 사무관(044-203-4284)

「철강, 석유화학 경쟁력강화방안」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사업재편 가속화

- 주형환 산업부장관, 포스코 광양제철소, 롯데케미칼(여수) 방문 -

① 철강 : 후판 설비 선제적 감축, 경량소재 대규모 투자, 기활법 신청
② 석화 : 공급과잉 품목 감축 · 기활법 신청,
첨단분야 투자 확대 및 울산 지상배관망 사업 본격화

□ **주형환 장관**은 **11.9(수) 여수 · 광양지역**을 방문, **① 여수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②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방문, ③ 권오준 포스코 회장 면담**(광양제철소), **④ 광양제철소 시찰** 등 일정을 수행함

○ 이번 방문 목적은 지난 9.30(수)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점검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 회장사**(포스코, 롯데케미칼) **현지공장을 방문**한 것임

1.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 **(개요)** 주 장관은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장, 현지 주요 업체 공장장과 함께 업체별 **사업재편 추진현황, 신규 투자계획** 등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9**(수) 10:00~10:40 / 산업단지공단 여수 · 광양지사 회의실
○ **(참석)** 주형환 장관,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장(롯데케미칼 사장), 6개社* 대표
*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삼남석유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LG화학

□ **(모두발언) 주 장관**은 업계의 컨설팅과 정부의 「경쟁력강화방안(9.30)」에서 지목된 **공급과잉품목**(TPA, PS(폴리스티렌), 합성고무(BR, SBR), PVC(폴리염화비닐))부터 글로벌 수급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설비조정을 추진**하고,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지난 9월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기활법 적용 승인에 이어, **「9.30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후, 불과 **1개월만에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비 대형화**와 **고부가 품목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 「경쟁력강화방안」에 따른 **공급과잉 품목들의 사업재편**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선제적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해 정부는 기활법을 활용하여 **금융, 세제, 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0 10:07:40

- 한편, **대산지역 첨단정밀화학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중 추진할 예정**이며, **울산지역 지상배관망 사업도 관련 업체들이 추진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함

○ 주 장관은 이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눌언민행**(訥言敏行)"을 새기고 **석유화학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업계 입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석유화학협회장)은 석유화학업계가 **「경쟁력강화방안」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 롯데케미칼은 **❶고부가제품**(SSBR, 접착제용 소재) **개발 ❷해외사업 확대 ❸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❹울산배관망 사업 참여 등에 '18년까지 총 2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

○ 한편, 참석한 다른 업체들도 **컨설팅 결과**와 **「경쟁력강화방안」**을 참고하여,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인 설비감축**과 함께 **NCC** (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 대형화, 고부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TPA를 생산**하는 모 업체는 **조만간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기활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장 방문)** 간담회 이후 주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납사 분해공장**(NCC : Naphtha Cracking Center)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함

2. 포스코 권오준 회장 면담

□ **(개요)** 주 장관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철강업계의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과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주 장관은 **하이스틸**(강관사)이 기업활력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이후, 대표적인 **철강 대기업들이 노후설비 매각과 고부가 투자**에 대한 **기활법 신청을 준비**하는 등 **철강업체들의 사업재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권 회장은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많은 철강업체들이 설비 조정과 고부가 철강제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함

□ **(포스코 계획)** 권 회장은 포스코도 **노후 후판 설비 조정**과 **경량소재 투자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재편 전략을** 소개함

○ **(후판)** 수요 급감에 대응하여, 고급 후판 비중 확대를 통해 **후판 실제 생산 능력을 조정**하고, 조선산업과 비조선산업 수요를 보아가며,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신규투자)** 미래차, 항공기 등의 핵심소재인 **타이타늄, 마그네슘** 등 경량소재는 우리 철강업계가 보유한 제조기술과 설비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 경량소재 R&D 및 설비 투자에 '21년까지 **약 4,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포스코 투자계획 : 타이타늄 3,074억원 (설비 2,470억원, R&D 604억원)
마그네슘 1,231억원 (설비 967억원, R&D 264억원)

□ **(정책지원)** 이에 주 장관은 포스코가 업계 회장사로서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방향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 이미 국제적으로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정부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0 10:07:40

○ **(후판) 글로벌 조선 수주 절벽** 및 **중국산 일반 후판의 수입 증가 지속** 등으로 내년부터 **국내산 후판 수요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 올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글로벌 선박발주량 72%↓, 국내 수주량 87%↓

- 포스코가 회장사로서 **타 업체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함

○ **(경량소재)** 정부도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기술개발·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기후변화 대응)** 한편, 권 회장은 파리협정 비준(11.3) 등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국내 CO_2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관 합동의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건의함

○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내년부터 CO_2 획기적 저감이 가능한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밖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현장시찰)** 주 장관은 면담을 마치고 광양제철소 **고로 등**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함

※ 첨부 1. 석유화학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2. 여수·광양 방문 일정(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재석 사무관(철강, ☎ 044-203-4285), 한종호 사무관(석유화학, ☎ 044-203-42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석유화학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try of Trade,
try and Energy

2016. 11. 9.(수)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0 10:07:40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지난 9.28(수) 간담회 이후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장님과
각 업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이곳 여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발전 성과 >

한국전쟁 전후, 크림화장품,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하던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1972~77) 계획을 기점으로,
1972년에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7년 후에는 여수석유화학공업단지를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1차('73), 2차('78) 오일쇼크와 IMF 등
경제위기를 돌파해내면서,
세계 4위의 석유화학강국으로 자리 매김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신
업계 원로분들과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전 요인과 경쟁력 확보 노력 >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업계는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사상 최고수준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과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부 기업들에서
고부가·고기능 제품 개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선도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50대 석유화학기업에
4개 업체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4개사 총 매출액이 중국 시노펙의 매출액과 비슷할 정도로
후발국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컨설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원료 경쟁력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설비의 대형화와 집적화를 통한 높은 효율성과
설비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셰일, 천연가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저원가 설비가 미국, 중동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0 10:07:40

중국, 인도 등 과거 우리의 수출대상국이었던 국가는
자체 생산을 확대하여 수입의존도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제3국으로 수출까지하는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결과와 업계와 전문가그룹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 9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선제적으로 공급과잉 품목 설비를 축소하고
고부가 설비로 전환하는 한편,
기활법 적용도 준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방안」에 따른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 추진은 불가피합니다.

지금과 같이 저유가로 인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첨단 화학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재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기활법' 을 활용하여 금융, 세제, 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인프라 구축 등에도 참여 기대 >

3년 전인 2013년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녹지 해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올해 3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6개 업체가 총 2.6조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대산지역 첨단정밀화학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중 추진할 예정이며,
울산지역 지상배관망 사업도 관련 업체들이 추진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try of Industry
try and Energy

지난번 간담회 때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논어 이인(里仁)편에 "눌언민행(訥言敏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인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더딘 반면,
군자는 말은 어눌하더라도 행동은 민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첨단화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11-10 10:07:40

참고 2 여수 · 광양 방문 일정

□ 방문 일정

❶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산단공 여수지사) → ❷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방문 → ❸ 포스코 회장 면담 → ❹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

시 간	세 부 사 항	비 고
10:00～10:40	**① 여수석화단지업계 간담회** * 롯데케미칼,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삼남석유화학 대표 등 참석	**산단공 여수지사** * **사진촬영**
10:40～10:50	**이동** (산단공 여수지사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10:50～11:30	**②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시찰**	* 방명록, **사진촬영**
11:30～12:00	**이동**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광양)	
12:00～13:30	**③ 포스코 회장 면담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찰**	* 방명록, **사진촬영**

Minist
Indus